긴급 유류비 지원 농축어업 생산비 부담 던다

도, 5일 현안 대응 브리핑 통해 사업 계획 밝혀
면세유 상승분의 20% 지원… 2만9000여명 혜택

제주도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는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 유류비 지원에 나선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대응 브리핑을 갖고 예비비 23억 9600만 원을 투입,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대책은 민선 8기 도정의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어업용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농축산인까지 확대한 조치다.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상승분 차액의 2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과거 3년 평균 1ℓ당 휘발유 771원, 경유 813원, 등유 782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휘발유 1218원, 경유 1326원, 등유 1069원으로 각각 58%, 63%, 3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 1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또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대책으로 농업인 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등 총 6종의 면세유류에 리터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휘발유 56ℓ, 경유 49ℓ, 등유 87ℓ 미만 등은 지원금액이 5000원 미만이어서 신청 시 교통비 소요 등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또 추경예산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소비자 유통패턴 변화에 대응한 개별농가 택배비 지원 등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인상분 10% 및 3종 복합비료 인상분 10% 추가지원 계획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현 도 정무부지사는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시, 추석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9~12일 선별진료소·의료기관·약국 지정 운영

서귀포시가 추석 연휴 4일간(9~12일) 응급환자 발생 대비 및 진료 공백 예방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21곳과 약국 31곳을 지정·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서귀포시보건소는 연휴기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한다. 특히 매일 비상진료(오전 9시~오후 6시)와 선별진료소(오전 9시~오후 5시30분)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는 검사·진료·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기관 12곳과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9곳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문의하면 진료 등 응급의료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금탁기자

첫 임업직불금 한달간 추가 신청 접수

서귀포시, 10월 7일까지… 농업법인·임업인 대상

서귀포시가 올해 첫 임업직불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분야 직불금 추가 신청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올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규정됨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지원액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의 경우 최대 2196만원, 농업법인은 3596만원이다. 육림업의 경우는 임업인 1410만원, 농업법인은 20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가운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20만원이 제공되며 다른 직불금과 이중 지급은 안 된다.

시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에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12월쯤 지급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코로나19 취약농가 지원
제주시, 30일까지 2차 접수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취약 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총 예산 31억원을 투입해 해당 농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비 상승과 소비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영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농가의 경영비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 농가와 2021년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가 지급된 농가에 한한다. 다만 공고일인 8월 9일 기준 농업경영체가 적합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6일까지 이뤄진 3188명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자격을 확인한 뒤 추석 전 1차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2차분 신청 접수는 공익직불금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폭우 쏟아지는 제주공항 5일 제주국제공항에 비바람이 들이치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있다. 이상국기자

부동산·건축경기 침체 토지이동 둔화

서귀포지역 토지분할·지목변경·합병 모두 감소세

최근 경기 침체에다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 토지 및 건축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서귀포지역의 토지이동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2020년 줄었던 토지이동 실적은 지난해 다소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올해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토지이동 정리 현황은 분할 2671건, 지목변경 1465건, 합병 1154건, 토지개발 9건,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8건, 정정 31건 등 5338건이다.

이는 매년 8월말 기준, 최근 3년간 토지이동건수인 2019년 1만311건, 2020년 5472건, 2021년 7764건에 견줘 가장 적다. 연간 건수는 2019년 1만4366건, 2020년 9506건, 2021년 1만1128건 등이다. 2019년의 경우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토지이동이 많이 이뤄졌고, 지난 3년간 지역별로 이뤄진 지적재조사 실적도 추가됐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다 국내외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모두 올라 부동산과 건축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에 부동산과 건축자재 가격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올해 토지이동에 대한 민원도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취약계층 공공근로
273개 사업 총 949명 모집

제주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 인원은 전통시장과 체육시설 운영 지원, 도로변 환경 정비 등 273개 사업 949명이다.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내다.

참여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으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다.

참여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올해 총 21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의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728-2812)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핵심 물질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